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지역차 크다

용인 처인구 69%, 보성 34%~35%P 차이
광주 45.9%·전남 43.8% 전국 평균 밑돌아”

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인정에 지역별 편차가 큰 가운데 광주·전남 등급 인정률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제출받아 전국 17개 시·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으로 경기도가 5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과 제주 각각 58.1% ▲

인천 57.9% ▲강원 55.4% ▲충북 53.4% ▲대전 53.2% 등의 순이었다. 반면, 등급 인정률이 가장 저조한 시·도는 전북(42.7%)으로 파악됐으며, 이어 ▲부산 42.9% ▲경남 43.1% 등이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45.9%와 43.8%를 기록,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1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엔 광주가 46.3%(12위), 전남은 43.5%(14위)였다. 전국 평균은 51.0%이며, 지역별 최대편차는 16.5%이다.

시·군·구별로는 등급인정률에 최대 35.5%p까지 차이가 났다. 시·군·구별로 보면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69.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기 동두천시(67.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66.9%) 등의 순이었다.

반면 경남 산청은 30.5%를 기록해 등급인정률이 전국 최하위였으며, 이어 ▲부산 중구·전북 정읍 각각 33.5% ▲인천 옹진군 33.7% ▲전남 보성 34.0%였다.

이 같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며서 등급과 판정을 받은 일부 대상자들이 등급인정률이 높은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재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고흥에 사는 R씨는 올해 초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

자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겨 2등급 판정을 받는 등 최근 3년간(2010년~올해 7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뒤 주소지를 변경해 재신청한 사례는 모두 4427건.

재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919건을 기록한 경기였다. 서울은 665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성주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도시와 농촌, 소득에 따라 달리 매겨져서 등급판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개선하고 방문조사원을 늘리는 한편, 현행 장기요양등급(3단계→5단계)을 확대해 등급판정위원회가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추억의 사직공원 ‘팔각정’ 철거 논란



3층 높이 전망타워 설치

광주 남구 사직공원의 팔각정 자리에 전망타워를 건립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팔각정 철거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남구 사직공원내 팔각정을 철거하고 오는 2013년 9월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454㎡, 최고 높이 34.7m 규모의 전망타워를 짓는다. 전망타워에는 전망탑과 문화카페, 전시공간, 옥상정원 등이 들어서며 국비 20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망타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직 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광주시는 지난 5월3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시는 지난 7월에 전망타워 현상공모작이 확정됨에 따라 늦어도 내년초 철거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전망타워 설계는 현재 60%가량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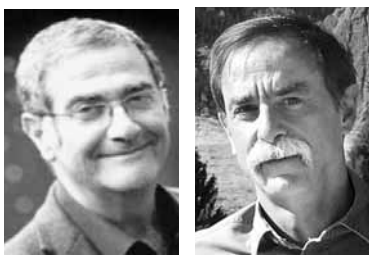
하지만 일부 지역민들은 1973년 완공돼 수십년간 광주시민과 함께해온 팔각정이 철거된다는 소식에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근·현대 건물이 거의 없는 광주에서 그나마 오랫동안 보존돼온 팔각정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것이다. 광주시 건축단체 연합회 등 전문가들도 조만간 사직공원 철거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 관계자는 “전망타워내에 팔각정이 갖는 의미와 역사 등을 고려한 기록보존의 공간도 만들 계획”이라며 “폐적한 쉼터공간 제공은 물론 사직공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철거위기에 놓인 광주시 남구 사직공원 팔각정. 지난 1973년 완공돼 40여년간 광주시민의 휴식처로 사랑받아온 사직공원 팔각정이 철거를 앞두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佛 아로슈·美 와인랜드 노벨 물리학상 공동수상



세르주 아로슈 데이비드 와인랜드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 물리학에서 혁신적인 실험기법을 개발한 프랑스의 세르주 아로슈와 미국의 데이비드 와인랜드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9일 이들을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두 사람은 “개별 양자 입자를 파괴하지 않은 채 직접 관찰하는 기법을 시연함으로써 양자 물리학 실험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노벨상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부분별 수상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1000만 크로네(한화 약 17억원)였으나, 금융위기 때문에 올해에는 800만 크로네(13억여원)로 줄었다. /연합뉴스

본사 인사

▲**최종재**(동부취재본부 순천주재) 의원면직 (10월 10일자)

쌀 직불금 6년만에 인상...ha당 70만원→90만원

농가에 정부가 지급하는 직불금이 6년 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을 내년도 생산분부터 기존 ha당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쌀 직불금은 ha당 일정액을 주는 ‘고정직불금’과 쌀 시세가 목표가를 밑돌 때 차액의 일부를 주는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쌀 고정직불금은 지난 2006년 ha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고 나서 6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변동직불금도 ha당 4만원 가량 인상된다. 지금까지 61가마로 산정했던 ha당 쌀 생산량을 내년부터는 63가마로 산정함에 따라 직불금도 덩달아 늘어난다.

농식품부가 쌀 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농가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농가소득은 2006년 연 3230만원에서 지난해 3015만원으로 200만원 이상 줄었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가 20% 이상 오른 것에 비해보면 농가 경제가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이 같은 기간 4133만원에서 5098만원으로 23.4% 늘어난 것과도 극명하게 대조된다. 농촌 가구의 소득은 도시 가구의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0년과 지난해 쌀 재배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40배가량인 3만2000~3만8000ha씩 줄어 쌀 자급률이 2년 연속 90%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농식품부 서규용 장관은 “쌀 가격을 올리면 서민들의 식탁물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쌀 직불금을 인상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글, ‘세계문자올림픽’ 금메달

역대 최고 문자를 뽑는 ‘세계문자올림픽’에서 한글이 금메달을 받았다.

9일 세계문자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차 세계문자올림픽에서 한글이 1위에 올랐다. 2위는 인도의 텔루구 문자, 3위는 영어 알파벳이 차지했다. 대회에는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인도 등 자국에서 창조한 문자를 쓰거나 타국 문

자를 차용·개조해 쓰는 나라 27개국이 참가했다. 참가한 각국 학자들은 30여분씩 자국 고유문자의 우수성을 발표했다. 글자 항목은 문자의 기원과 구조·유형, 글자수, 글자의 결합능력, 독립성 등이었으며 응용 및 개발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였다.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이양하 전 주 레바논 대사는 “영어 알파벳 26자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는 300

여개에 불과하지만 한글 24자로는 이론상 1만1000여개, 실제로 8700여개의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며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정보전달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참가한 각국의 학자들은 대회 마지막 날 ‘방곡 선언문’을 발표, 자국 대학에 한국어 전문학과와 한국어 단기반 등을 설치하는 등 한글 보급에 힘쓰기로 했다. /연합뉴스

무토 주한 대사 “정치적 어려움 있어도 협력 계속해야”

광주 경제포럼 기조연설

무토 마사토시(사진) 주한 일본대사가 9일 “한국과 일본이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협력관계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토 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광주 서구 치평동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한·일 경제교류 심포지엄’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의 정신이 양국관계 우호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자제다”고 말했다.

그는 “1998년 당시 오부치 총리가



한국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수행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일관계를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또 무토 대사는 “한국과 일본이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류·협력관계를 계속해야 한다”며

“지금이나 오히려 한일교류의 적기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한일 문화교류가 현재 한일관계의 바탕이 됐다”며 “지난 9월 한일 외무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것처럼 대국적인 관점에서 경제, 인적교류, 문화교류, 안전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한 양국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무토 대사는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한·일 EPA와 FTA 체결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최권길기자 cki@

신용카드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 개인 출장가능!

골드유통
010-2082-6353, 062)383-6364

넉글째 글러온더블행은

취업과 병역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조선이공대학교 특전부사관과

100% 취업을 보장하는 학과

- 전국 최초 특전부사관과 개설 및 육군과 전국 최초 학군제휴
- 2012년 졸업생 100% 취업 - 부사관 80% 임관
- 2012년 특전부사관 군장학생선발시험에 전국 최다합격
- 특전부사관 및 육해공군 부사관에 동시 지원 가능 - 임관 100% 보장
- 교수 3명 전원 특전사 대령 출신으로 맞춤형 교육



박 환 수 교수
(예, 육군대령)

전제비공수 특전여단 부여단장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교수



윤 재 정 교수
(예, 육군대령)

전제비공수 특전여단 참모장
제13공수 대대장, 작전참모
부여단장



이 성 준 교수
(예, 육군대령)

전제 공수 특전여단 중대장
특정대장, 지역대장
국방부, 육군본부 정책실
강원도청 국방협력관

구 분	전형일정
수시 1차	2012. 08. 16. - 10. 09.
수시 2차	2012. 10. 29. - 11. 30.
정시 1차	2012. 12. 21. - 01. 10.
정시 2차	2013. 01. 21. - 02. 01.
정시 3차	2013. 02. 18. - 02. 25.

연락처 062-230-8920(학과실) 010-5339-9666(이성준교수)

조선이공대학교 특전부사관과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http://www.kleader.kr

스피치 리더십 과정

제24기 수강생 모집!!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 스피치 교실

제 3기 수강생 모집

초·중·고 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교육

스피치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며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 집니다.**

면접능력향상과정

■대 상 : 취업준비생, 직업훈련생, 대학생
사회초년생, **면접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 합니다. 본원에서는 학생들의 학과별 다양한 대응분야를 **기획·설계**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에 적극참여하는 **활동적 리더십** 배양을 목적으로 **면접능력향상과정** 등 **취업캠프**를 맞춤 지원합니다.



교육지사·가맹점 모집 중
☎062)222-2255 /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해 드립니다.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 면적 :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